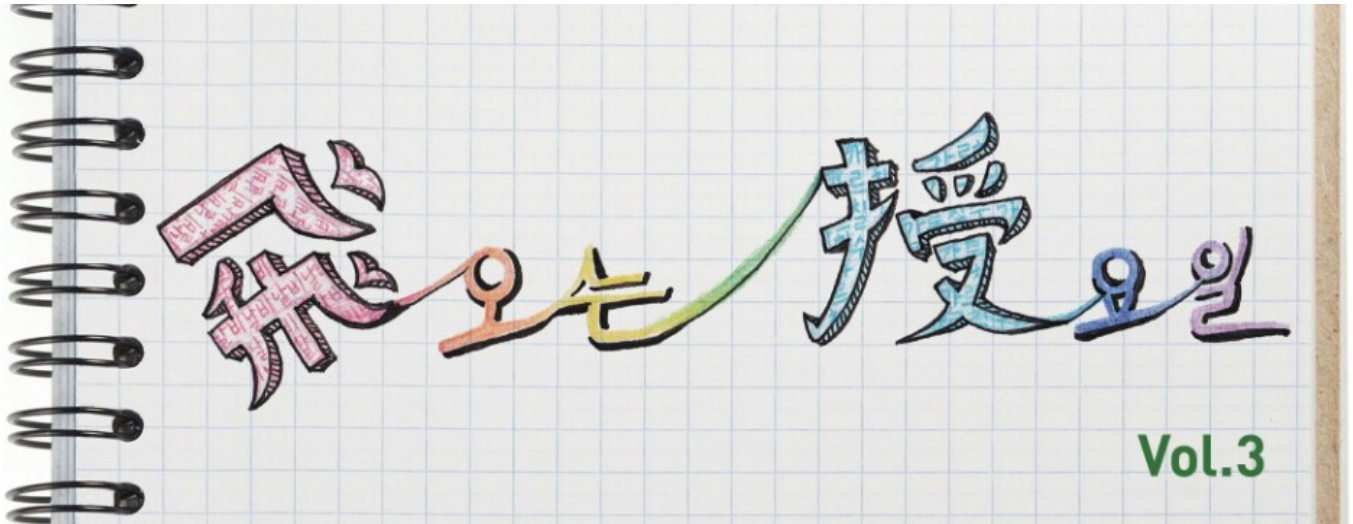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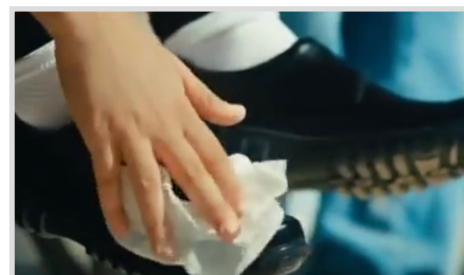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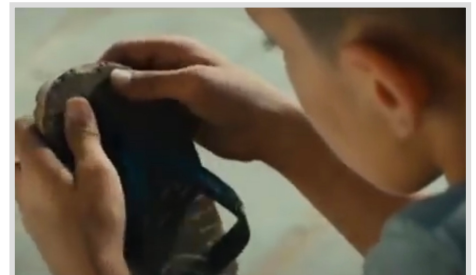
서른네번째 이야기

『2019 BEE KOREA VISION』

말씀을 행하라!

조문상 선교사 [BEE KOREA 사무총장]

몇 년 전 ‘The Other Pair(다른 한 짝)’라는 4분 정도 분량의 짧은 영화가 ‘룩소르’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기차역에서 휴지를 파는 소년이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망가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휴지 파는 것도 잊은 채 역사 밖 한 귀퉁이에 앉아 망가진 슬리퍼를 고쳐보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속상해하며 지나던 군중을 멍하니 쳐다볼 때 자기 아버지와 역사로 들어온 자기 또래의 한 소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소년보다는 그 소년이 신고 있는 멋진 새까만 새 구두가 휴지 팔이 소년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난한 소년은 자신의 망가지고 낡은 슬리퍼와 그 소년의 새 구두를



번갈아 쳐다보며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기를 반복합니다. 구두를 신은 소년도 그 구두가 얼마나 좋은지 조그마한 먼지만 묻어도 휴지로 열심히 닦아 내곤 합니다.

그때 역사의 종이 울리며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은 열차를 타기 위해 열차 문으로 떼 지어 몰려갑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재촉으로 아버지를 따라 사람들을 비집고 열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거의 떠밀리다시피 열차에 오를 때 그만 구두 한쪽이 벗겨져 플랫폼에 떨어졌습니다. 그 구두 한 짝을 내려가 가져올 여유도 주지 않고 야속하게도 기차는 서서히 플랫폼을 떠



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휴지 팔이 소년은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 떨어진 구두를 집어 들고 망설입니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구두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구두를 애타게 기다리는 또래의 소년을 바라봅니다. 이윽고 결심한 듯 휴지 팔이 소년은 구두를 들고 기차 문에 서서 애타게 구두를 기다리고 있는 소년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두 소년은 팔을 뻗어 구두를 전해주고 전해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차는 점점 힘을 얻어 속력을 높여 구두를 건네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마지막으로 달리면서 자신의 조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다해 구두를 주인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소년에게 미치지 못하고 다시 플랫폼에 떨어집니다.

구두 주인인 소년은 크게 낙심해 합니다.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신의 남은 구두 한 짝을 벗기 시작합니다. 역시 자신의 노력이 헛되게 된 것에 실망한 휴지 팔이 소년은 구두 주인인 이 소년이 하는 행동을 의아해하며 바라봅니다. 구두 주인은 벗은 구두 한 짝을 휴지 팔이 소년에게 힘껏 던집니다. 놀란 휴지 팔이 소년은 던져준 구두를 집어 들고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멀어져 가는 기차에서 구두 주인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휴지 팔이 소년에게 손을 흔들고, 이를 본 소년은 환한 미소를 띠며 구두 주인인 소년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합니다.

이 영화에는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영화가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말 때문이 아니라 두 소년의 행동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신발이 필요한 가난한 휴지 팔이 소년이 주인에게 구두를 돌려주려는 최선의 행동이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 한 짝을 받을 수 없게 된 구두 주인인 소년이 그렇게도 아끼던 자신의 남은 한 짝을 가난한 소년에게 주는 행동이 감동스럽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한 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말보다는, 그리고 지식보다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즉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영화에서 두 아이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행동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반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휴지 팔이 소년은 집어 든 구두를 들고 다른 곳으로 뛰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갖고 싶은 것, 그것이 그 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소년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과는 반대로 구두를 돌려주려고 구두를 전 팔을 할 수 있는 한 뻗으며 그 구두 주인을 향해 힘껏 뛰어갔습니다. 그 소년의 자신의 감정과 반대된 행동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벗겨진 자신의 구두 한 짝을 받지 못한 소년은 낙망해 합니다. 이것이 그 소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 주인 소년은 그 자연스러운 감정과는 반대로 자신의 구두 다른 쪽마저 벗어서 가난한 휴지 팔이 소년에게 던졌습니다. 그 소년의 자신의 감정과는 반대로 한 행동이 또다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반하여 나오는 행동이 감동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22-23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 행동, 탐욕이 아닌 자비와 양선에서 나온 행동, 원망과 분노, 짜증이 아닌 감사와 희락에서 나온 행동, 교만이 아닌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룩한 행동



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명하신 ‘착한 행실’은 거룩한 성품이라는 토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 짧은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휴지 팔이 소년은 자신의 구두에 대한 자신의 욕구보다 구두 주인의 안타까움을 헤아리고 행동했습니다. 구두 주인인 소년은 자신의 속상함보다 가난한 소년을 헤아리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해서 이웃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행동에 세상은 감동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내 재물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조차도 포기할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행동이면서 나를 포기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영화의 원제목은 ‘다른 한 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을 ‘두 기쁨’으로 바꾸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휴지 팔이 소년은 자신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갖고 싶었던 구두를 가질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두를 던져주었던 소년도 자신의 것을 필요로 했던 가난한 소년에게 나누어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나눌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나의 포기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행하라!’ 2019년에는 우리 BEE의 장점인 성경적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품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 사진 출처: 영화 '다른 한 짝', <https://www.youtube.com/watch?v=y0TxpNRDzII>

BEE의 보석 찾기

• 2018 하반기 BEE 곳곳에서 반짝반짝~ 하나님의 기쁨이 된 BEE의 보석들입니다.



2019년에도 '보석찾기'에서 BEE식구들을 찾아갑시다. 기대하고 기다려 주세요!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2019년 '말씀을 행하라!' BEE KOREA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삶의 전 영역(성품, 전도, 말씀, 선행)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 말씀을 행하라! 말씀대로 하는 2019년 첫 아웃리치에 초대합니다.
 - 1) 2019 베트남 아웃리치 : 2019. 01. 14(월) - 20(일), 하노이/하이퐁, BEE훈련센터 방문 및 수업 참관, 소요예산 100만원
 - 2) 2019 케냐 아웃리치 : 2019. 02. 01(금) - 09(일), 나이로비/이텐/음발레/키스무 외, BEE 졸업식 참관, 소요예산 200만원
3. 'BEE WORLD CONFERENCE' BEE WORLD! 2019. 10. 02(수)-09(목),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40년 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역사의 증인들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가요!
4. 2019년 'BEE오는 수요일'은 우리 삶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롭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가득 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2019년 3월에 6일 수요일에 다시 뵈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Happy the New Year 🎵